

토끼 물에 빠진 책을 구하다

어린 시절부터 토끼는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이었다. '토끼와 거북이' 속 토끼는 자기의 실력을 믿고 경주에서 자신보다 느린 거북이에게 지고 마는 게으른 토끼로 나타난다. 그런가하면 '별주부전'의 토끼는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토끼는 앨리스를 환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인다.



풍요와 다산의 토끼처럼



십이지 중 네 번째이며 달로는 음력 2월을 상징하는 토끼. 토끼는 달 속 계수나무 밑에서 절구에 불사약을 찧고 있다고 해서 불로장생을 상징한다. 달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토끼는 음의 속성을 지녀 번창, 풍요를 뜻하기도 한다. 1년에 많게는 6번 임신하고 한 번에 스무 마리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어 다산과 다복의 동물로 불린다.



김영미 작가의 '인문학을 건지다'에 등장하는 토끼는 학자 같은 토끼다. 인문학 경시를 질타하는 토끼는 물에 빠진 책을 구하는 철학자가 되어 수면위에 떠 있다.

달나라 속에도, 이상한 나라 속에도 토끼가 있다

“갑자기 왜 토끼를?” 싶겠지만 2011년 신묘년(辛卯年) 아니던가, 남녀노소 누구 하나 토끼와 관련된 전래동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각자 기억하는 토끼 이야기 풀어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할아버지가 입을 때 이야기가 시작된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샷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토끼는 하얀 달 속에서 천년만년 풍요롭게 살 것을 바라며 방아를 찧는다고 전해내려 왔다.

고등학생인 손녀딸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토끼 이야기를 기억해낸다. 토끼가 초대한 이상한 나라에서 앨리스는 물체가 작아 보이거나, 커 보이거나, 왜곡되어 보이는 경험을 한다. 앨리스를 초대한 토끼 덕분에 탄생한 드라마 속 명대사 하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이 있다. 매일매일 동화 속을 보게 되는 듯 신기하면서도 슬픈 증후군이다. 내가 그 증후군에 걸린 게 분명하다.”

서로가 기억하는 토끼에 대한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새근새근 잠든 막넛손자 품에는 마시마로 인형이 안겨 있다. 하얀 솜뭉치가 뭐가 했더니 엽기토끼란다. 그리고 보니 둥글둥글한 토끼인형이 펍 귀엽다.

상상력 속 토끼가 걸어 나와 작품이 되다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는 토끼는 현대미술 작품에도 종종 등장했다. 요셉 보이스(1921~1986)는 1965년 11월 26일 뒤셀도르프의 슈멜라 화랑에서 '죽은 토끼에게 어떻게 그림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는 다른 동물도 사용했지만, 토끼는 보이스가 가장 빈번히 사용하고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 동물이었다. 반면 달은 가장 오래된 TV라고 말하던 백남준은 '달과 토끼'를 상상력의 상징이자 창작의 원천으로 생각했고 매우 낭만적이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작품에 자주 끌어들었다.

김영미 작가의 '인문학을 건지다'에 등장하는 토끼는 학자 같은 토끼다. 인문학 경시를 질타하는 토끼는 물에 빠진 책을 구하는 철학자가 되어 수면위에 떠 있다. **MEDICHECK**



이소연 'gray rabbit' 130×160cm Oil_on_canvas_2007